

16/06/19(주) 주일예배 / 제목 : 아버지의 마음(삼하18:31~33) p.495

(31)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실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32)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33)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였더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장애인 아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담은 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Dick)이고 아들의 이름은 릭(Rick)입니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로 혼자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후, 의사는 부모에게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릭은 컴퓨터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도의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은 “달리다, 달리고 싶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15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갑니다. 그들은 완주했고, 끝에서 두 번째로 골인을 하였습니다.

릭은 경기 후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981년 보스턴 마라톤 첫 출전에서 1/4 지점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982년 42.195km 보스턴 마라톤 완주에 성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입니다. 마라톤을 시작한지 4년 뒤, 아들은 더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아들의 소원은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 철인 3종 경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로 수영, 사이클, 마라톤으로 구성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 몰랐고 6살 이후엔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아이를 더 힘들게 할거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합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는 허리에 고무 배를 묶고 3.9km 바다를 수영하고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2km의 용암지대를 달리고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며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버지가 끌어주는 보트에, 그리고 자전거에 누워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들어오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를 위해 끝까지 남아 그들을 기립박수로 맞아 줍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말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철인 3종 경기는 아침 7시에 출발하여 밤 12시까지 17시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기록은 “6시간 14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인 3종 경기를 6회 완주하였고, 최고 기록은 13시간 43분 37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도전은 계속되어, 42.195km 마라톤 완주 64차례, 단축 3종 경기 완주 206차례, 1982년부터 2005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 24년 연속 완주, 그리고 마침내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 미국대륙을 횡단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들이 컴퓨터로 쓴 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릭은 1993년 보스턴 특수 교육분야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릭은 컴퓨터를 통해 말합니다. “CAN”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아버지의 나이 65세, 아들의 나이는 39세. 두 사람은 더 큰 도전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이처럼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에 대한 바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딕(Dick)은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자 직장도 그만둔 채 철인 3종 경기까지 마다하지 않은 채 해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 못지않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고 패륜아처럼 악을 행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런 자녀를 품고서 끝까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가정 문제 중의 하나였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사건 속에서 일어난 아버지 다윗의 자식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주일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마도 가장 잘나고 잘생긴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왕자였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 잡을 때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또한 그의 머리칼은 솔이 좋아서, 해마다 한 번씩 머리를 깎곤 했는데, 처낸 머리칼을 달아 보면 왕궁의 저울로 200 세겔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솔이 많고 아름다운 머리라서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잘난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창을 들이대고 말았습니다. 즉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아버지 다윗 왕의 군사와 아들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들에게 다윗 왕은 아들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아직

철이 없으니, 나를 보아서라도, 나를 보아서라도, 너무 심하게는 다루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 원수 된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반역을 하고, 아버지는 그 반역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전쟁은 터졌고, 압살롬의 대군은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울창한 상수리나무 밑으로 빠져 도망가다가,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타고 가던 노새는 그대로 달아나 버리고 압살롬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랑스럽던 머리채가 교수형 도구가 된 것입니다. 머리채 때문에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군대장관 요압은 창 세 개를 연거푸 던져, 상수리나무에 매달린 채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찢어 죽여 버렸습니다.

아버지에 반역한 패륜아의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압살롬이 죽자 다윗의 군대는 승리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승리의 기쁨도, 백성들의 환호성도 전연 관계하지 않고, 가슴 찢어지게 슬피 울며 외칩니다.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내 자식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게 웬일이냐?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하며 목 놓아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존재하게 된 사람은 하나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의 젖을 먹고,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 왕좌를 빼앗으려는 야심을 갖고, 오랫동안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며 끝내는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 죽여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평범한 아버지였다면 백번이라도 그 아들을 위해 자기가 대신 죽었을 것입니다.

이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부모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천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위대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선한 마음은 자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이 마음을 아시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그러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식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된 분들의 본심입니다. 악한 자식은 있어도 악한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더러 있어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 효도 관광을 시켜 준다고 늙으신 부모님을 멀리 모시고 가서 버리고 오는 자식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연고 없는 노인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자식들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른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얼마든지 전화번호도 알고, 찾아갈 수도 있건만, 자녀들에게 혹 허물이 될 것 같아 이름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부모는 자기가 버림을 받으면서도 자식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덮어주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고, 부모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으며, 지금도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기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가장 큰 불신앙의 모습이 기록된 본문이다” 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이 되는 이유로 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식을 총애함. ②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툼. ③ 國政책임자로서 나라의 공의를 세우지 못함. ④ 백성들의 감정과 동떨어진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함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난을 받을 것은 아니며 설령 비난을 받을지라도 아버지의 자식사랑을 어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이처럼 법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며 보통의 정서를 초월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압살롬의 아버지인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드라마는 한 목동에 불과하던 그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단숨에 때려눕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어 사울이 죽을 때까지 무려 10여년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헤브론에서 7년을 지내며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그곳에 궁전을 짓고 사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기까지 벌써 여러 번에 걸쳐 뒤집고 또 뒤집는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뒤집고 뒤집히는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는 아들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 당하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영웅이며, 전쟁의 용사이고 역대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였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적으로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의 결혼이 잘못되어지면서 그는 여러 아내를 두는 상황이 되었고 거기서 태어난 여러 이복 아들과 딸 때문에 시련이 많았습니다. 본문의 압살롬이란 아들은 마아가라는 아내에게서 난 자식으로 아들들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두 형들이 죽음으로써 사실상 첫째아들 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아들 중에서 인물도 출중해서 인기가 있는 아들이었고 가장 기대가 큰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아버지의 유업으로 자신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무엇이 그리 바쁘고 초조한지 아버지를 배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악당들과 작당을 해서 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 때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전쟁보다는 피난 길을 떠나는 다윗

야심에 찬 압살롬은 드디어 거사를 행합니다. 늙고 힘없는 아버지를 무례함으로 밟아 버립니다. 아버지의 군사들을 자신의 손에 넣어 버리고, 백성들의 인심도 도적질하여 소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왕궁을 자식에게 내어주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며 한없이 우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다윗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5:30)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다윗은 원래 전쟁터에서 살았고 그는 체질적으로 야전사령관 같은 야생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전쟁을 놓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으로써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니 성전 짓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할 만큼 그는 전쟁터를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며 통일이스라엘을 일군 인물입니다. 그러나 싸워야 할 대상이 아 들이고 보니 싸움 대신에 피난 길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 다. 그것은 아버지의 자식사랑 때문이었습니다.

2. 아들의 평안을 원했던 다윗

압살롬은 아버지를 내쫓고 승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아버지 다윗의 재기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다윗 군사의 잔당을 추격하였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편과 아들 압살롬 편의 두 대열에서 전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대적인 "압살롬에게 선하게 대하라"고 부탁의 말까지 합니다.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적장의 수장이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황을 챙기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나?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나? 불효는 고사하고 이런 패륜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느 역사에 이런 아들이 있단 말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나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 다. 모든 사람이 다 대적으로 생각했고, 원수로 생각했 지마는 다윗에게는 여전히 압살롬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나? 고 수차례 묻는 것입니다.

3. 아들 대신 죽었으면 좋겠노라고 말하는 다윗

두 편이 맞닥 뜨려 전투를 벌이는 이 과정에서 다윗군에 쫓기던 압살롬의 머리털이 숲속 나뭇가지에 걸리고 타고 가던 노새는 다리 사이를 빠져 달아났습니 다. 그가 자랑하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달려서 매 달려 있는 것을 요압장군이 찢어서 죽였습니다. 통쾌하게 죽었습니다마는 이 죽었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못합니다. 이거 얘기했다가는 자기도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 다.

그 만큼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침내 구스사람이 기어이 "당신 아들이 죽었소"라는 비보를 가지고 옵니 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은 그 비보 앞에서 읍니다. 전쟁은 다윗 편의 대 승리로 끝났습니 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곧 아들이 패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전쟁의 승리는 기쁨이 되거나 축제

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재였겠지만 다윗에게만은 축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삼하19:1~4) “(1)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2)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3)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4)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니”

그는 자신을 대적하고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지금 그를 죽이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 압살롬을 향하여 그의 죽음 대신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하면서 계속 통곡을 하는 아버지의 통곡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애비의 가슴을 아프게 한 자식이 바로 압살롬이었는데 그 자식이 죽었으면 애비의 속이 시원해야 될 듯도 싶은데 다윗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불효자식, 아버지를 내쫓은 자식,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한 자식, 아버지의 군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아버지의 백성들의 인심을 도적질해 간 자식이지만, 그 자식의 죽음에 아버지 다윗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신앙과 전쟁의 영웅이며, 역대 왕들 중에서 그만한 왕이 없었지만, 자식 앞에서는 한 사람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하에 죽일 놈이요. 못된 사람이요. 패륜아라고 했겠지만, 원수라고 했겠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이 아닌 한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기록이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영적으로 조명해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다윗의 자식사랑이 더욱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애비의 속을 그렇게도 끓여놓았던 자식이라도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애비의 심정은 누구나 대동소위 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대신 죽기를 바라는 다윗처럼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처지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 죽여주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다윗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며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감격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결론 /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가히 놀랄만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직장도 그만둔 채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고 아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다윗도 비록 패륜아인 압살롬을 처단하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을 보인 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결론핵심 :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려서 보답하는 자녀가 됩시다.

요약정리 /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1. 전쟁보다는 피난 길을 떠나는 다윗
2. 아들의 평안을 원했던 다윗

3. 아들 대신 죽었으면 좋겠노라고 말하는 다윗